



공속민투위

분쇄! 노동탄압
강화! 산별노조
완성! 주간연속2교대
쟁취! 현장권력
철폐! 비정규직

■ 발행인 : 의장 김 봉 윤 ■ 발행처 : 선전실(25-16호) ■ 게시기간 : 09월 12일까지 ■ 게시확인 : 사업부대표 이 흥 진

정몽구, 정의선은 해마다 돈 잔치... 조합원에게는 개뿔도 없다는 사측!

■ 감정이 3배인 10조 5천5백억 퍼붓고 위기 조장? 한전부지 팔아라!

2014년 3조 3천억 짜리 한전부지를 10조 5,500억에 매입한 것을 두고 각종 언론에서는 현대차 경영진에 대한 비판 기사를 쏟아냈었다. 2년이 지난 지금 현대차 주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한전부지 입찰 확정 직전인 **2014년 9월 1일 주가는 232,000원** 이후 곤두박질치기 시작해 2년후인 **2016년 9월 1일 주가는 131,500원**으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는 **2년전 한전부지 고가 매입의 부정적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다고** 한다. **사측 주장대로 정말 위기라서 조합원에게 줄 게 없다면 한전부지 부터 되팔아라!**

■ 위기라며 배당금 올려서 다 빨아 드셨네... 조합원에게 먼저 풀어라!

〈1주당 배당금과 정몽구회장 현대차 배당금〉

	1주당 배당금	정몽구 배당금
2015년	4,000원	887억원
2014년	3,000원	742억원
2013년	2,000원	495억원
2012년	2,000원	483억원

정몽구, 정의선은 작년 한 해 배당금만 1,430억원을 챙겼다. **해마다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배당금 대폭 올려 다 빼가고 있다.** 배당금 2천원 올리면 5천억이 더 빠져 나간다. 그리고, 사내유보금 112조원, 현금성자산 17조 7천억원, 신용등급 AAA, 부채비율 34.8%,

15년 순이익 6조 5천억원, 16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3조 6천억원... **이게 무슨 위기인가?**

■ 추석전 타결에 목맨 어슬픈 잠정합의는 더 큰 부결만 부를 뿐이다!

4만 9천 조합원의 민심은 분명하다. **사측의 막말로 땅에 떨어진 자존심 회복, 박유기집행부 집행 후 대폭 축소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금 원상회복, 해고자복직과 손배가압류 철회**인 것이다. 추석전 타결 운운하며 조합원의 기대에 못 미치는 어슬픈 잠정합의안이 나온다면 더 큰 부결만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측 또한 관리자들을 동원한 추석전 타결을 겁박한다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추석전 타결에 연연할 필요없다. **제대로 쟁취하자!**